

25.07.30.(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이철호 보좌관(김남근 의원실) 010-8268-2752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주스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식 개최

- 주스 소비 지속감소에 따른 해당 델몬트 주스대리점주 수익악화 극복을 위해 뜻 모아
- 회사 직접운영 조직 거래처 주스대리점 이관, 공급가 할인을 상향조정, 물량(판촉)지원 등 델몬트 주스대리점 수익증대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롯데칠성음료·주스대리점 협의체 운영을 통한 상생방안 지속 협의해 나갈 것

2025년 7월 23일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롯데칠성음료(주)는 7월 30일(수)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델몬트 주스대리점 협의회와의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과 김남근·김문수 국회의원, 롯데칠성음료(주) 임준범부문장과 델몬트 주스대리점주 협의회 남병하 대표 등 대리점주들이 참석했다.

델몬트 주스대리점은 1986년 대리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한 때 전국 150점이 성업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국민소득 증가와 생과일 소비 트렌드 확대로 국내 주스 소비가 매년 지속 감소함에 따라 델몬트 주스대리점이 69개점까지 축소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남근, 김문수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중재를 맡아, 그 동안 회사와 대리점 협의회는 국내 주스 음료의 소비 감소로 인한 주스 대리점주의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회사 직접 운영 조직 거래처 일부,주스대리점 이관 ▲주스대리점 취급 제품 확대 ▲물량(판촉)지원 확대 등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은 “일부 제조사들이 영업을

익을 명분으로 대리점 계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점 입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군 생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것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대리점과 본사, 현장과 기업이 지속가능한 시장을 함께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을지로위원회는 법의 바깥에 있는 을의 현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위원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대기업들이 경제적 약자, 대리점·판매점·가맹점 등과의 관계를 상생협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롯데칠성과 대리점 간 상생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도 국회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역시 “오늘 협약은 우리 사회의 큰 모범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사업주와 노동자, 강자와 약자 등 더 많은 상생협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7월 30일 (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